

현장과 함께, 사회적기업 정책 전환 본격화

- 3월 12일(목),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 발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2일 오후 2시 소셜캠퍼스온 서울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이하 ‘포럼’)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포럼은 송경용 한국노동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학계, 사회적기업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장들도 참여하여 포럼 논의와 정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포럼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사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특히 공개 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외부공개 방식으로 운영하여 정책 논의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새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정책협력 플랫폼’으로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위축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6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을 발표('25.12.24)하였다. 이를 통해 ▲ 사회적가치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역 협력 생태계 조성 및 ▲ 민관 협력 지원체계 혁신을 추진하며, ▲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 속에서 앞으로 정책 기획 단계부터 모니터링·평가 단계 까지 현장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 양극화, 지역 격차, 돌봄 공백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회연대경제가 중요하며,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정부와 현장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여 정책이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보다 실효성 있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포럼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 개요

2.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말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부경 (044-202-7425)
		담당자	사무관	윤문규 (044-202-7420)



붙임 1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 개요

- **[목적]**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장 및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 발족
- **[일시]** '26. 3. 12.(목) 14:00~15:30(90분)
- **[장소]** 소셜캠퍼스온 서울2센터(서울 중구 소월로 2길 30 T타워 18층)
- **[참석]**
 - (노동부) 차관(주재), 고용정책실장, 통합고용정책국장(간사) 등
 - (위원) 송경용 한국노동재단 이사장(좌장),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상임대표(간사) 등 18명
- **세부일정(안)**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5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14:05-14:10	'5	참석자 소개	사회: 사회적기업과장
14:10-14:20	'10	모두발언	고용노동부 차관, 좌장
14:20-14:25	'5	위원회 운영계획(안) 보고	간사
14:25-14:35	'10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회복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발제: 김혜원 교수
14:35-14:45	'10	사회적기업 현장 실태와 정책 개선 방안	발제: 고진석 대표
14:45-15:20	'35	자유토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세부 논의과제 및 향후 일정 등 논의
15:20-15:30	'10	마무리 말씀	좌장, 고용노동부 차관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사회적기업 정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송경용 한국노동재단 이사장^(좌장)님,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협회 대표님^(민간 간사)을 비롯한
학계와 현장 전문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을
출범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하나의 행사를 여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정책의 방향을 현장과 함께 논의하고,
사회연대경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은
결국 ‘사람’과 ‘노동’ 중심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빠른 성장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양극화, 돌봄 공백, 취약계층 일자리 등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회연대경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은 돌봄,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곳곳에서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고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이 큰 만큼,
지속적인 육성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 또한 중요합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정책에는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양적 확대 중심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말 위축된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4대 전략으로 하는
「‘26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 ▲지역 기반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며,
- ▲민관 협력 통합지원체제로 혁신함으로써,
-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이 포럼은 이러한 정책 방향 속에서
현장과 함께 사회적기업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협력 플랫폼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현장이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정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기업 정책의 기획부터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 수립까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이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논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포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